

개역개정 한글성경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하가/시아흐)라는 번역의 문제점*

김진규(백석대)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의 목적은 개역개정 한글성경이 시편에 사용된 하가(הָגָה/묵상하다, 말하다)와 시아흐(שָׁחַח/숙고하다, 말하다, 불평하다)를 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¹ 이들 동사의 명사형 하구트(הִגָּת/묵상)와 시하(שִׁחָח/묵상)도 때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필자가 지금까지 검토한 한글과 영어 성경들은 개역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 이 연구는 백석대학교의 교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1 김태경은 시편 번역사를 다루면서 다양한 번역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번역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김태경, “시편 연구사,” 「구약 논단」 제20권 제3호 (통권53집) (2014), 325-356. 이 번역에 대해서 김이곤은 히브리 문화적인 배경이나 대구법의 관점에서 잘 검토하였지만 하가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용례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동시에 이 번역에 대한 현대인의 이해라는 관점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김이곤, “시편 1편의 הָגָה와 שָׁחַח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제2호(1998), 43-51.

시아흐/시하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전혀 없는데도 개역개정판은 8구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필자가 검토한 세 가지 사전 중에 하가에 대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등록하고 있는 사전은 단 한 권인데, 이도 한 학자의 견해일 뿐이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번역의 사례들을 살펴본 후에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들이 등록하고 있는 하가/시아흐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하겠다. 그 다음 단계에는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구절들을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 이어서 이들 용어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들 용어들이 사용된 구절들의 대구법 구조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구절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번역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현대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다.

2. 연구 방법론

본 소고의 제한된 지면 내에서 성경 번역에 수반되는 번역비평 방법론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단지 본 연구가 성경번역 방법론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밝히는 정도로 방법론을 정리하려고 한다. 특히 본 연구가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히브리어학의 연구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서 출발하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하이머딩어(Heimerdinger)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히브리어학의 양대 학파로 독일의 리히터(Richter) 학파와 미국의 롱에이커(Longacre) 학

파를 들고 있다.² 리히터는 미시적 차원에서 거시적 수준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호하고, 롱에이커는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수준으로 진행되는 방법론을 선호한다.³ 예를 들면, 리히터는 단어 차원, 단어 묶음 차원, 문장 차원, 마지막으로 텍스트 차원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으로 계층을 엄격히 구분하여 접근한다.⁴ 언어학자요 선교사였던 롱에이커는 ‘담화 분석’이란 텍스트 기반 이론과 방법론을 주창한 학자로서 ‘담화 구조’(텍스트 언어학)라는 큰 영향을 끼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⁵ 그는 담화 구조라는 거시적 구조로부터 출발하여 미시적 수준으로 탑다운(top-down)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학파의 이론을 지면상 본 연구에서 모두 도입할 수는 없다. 단지 이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 중에 본 연구는 단어 차원의 의미론에 속하는 부분을 다룬다는 정도로 위치를 설정하고 출발하겠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또 염두에 뒤야할 분야는 문자적인 번역인가 역동적 동등성을 추구하는 번역인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진 니다(Eugene Nida)가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과 ‘형식적 동등성’(formal equivalence)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춘 번역인가, 문자적인 번역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⁶ 역동적 동등성이란 ‘의미 대 의미를 추구하는 번역’으로서 구절이나 전체 문장의 의미의 가독성에 초점을 맞춘 번역인 반

2 주원준, “히브리어 동사문의 양적 구조 분석 방법론 개괄,” 「신학과 철학」 16 (2010), 2에서 재인용. 원저는 Jean-Marc Heimerdinger, *Topic, Focus and Foreground in Ancient Hebrew Narratives* (JSOTSupp 29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10.

3 주원준, 윗글, 2.

4 윗글, 3-5.

5 Wikipedia, “Robert E. Longacre,” https://en.wikipedia.org/wiki/Robert_E._Longacre.

6 Wikipedia, “Dynamic and formal equivalence,” https://en.wikipedia.org/wiki/Dynamic_and_formal_equivalence.

면, 형식적 동등성은 ‘단어 대 단어를 추구하는 번역’으로서 단어나 구절의 문자적 의미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춘 번역이다.⁷ 예를 들어,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분류해보면, ASV, RSV, NASB, NKJV, NRSV, ESV 등은 문자적인 번역에 속하고, AB, JB, NEB, NIV, NJB, CCB, REB, NLT 등은 역동적 동등성을 추구한 번역이며, MLB, NAB, HCSB, NCB, CEB, NCB 등은 양자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번역들이다.⁸ 니다의 이론은 그 자체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접근이지만, 주커만(Ghil'ad Zuckermann)에 의하면 동등성을 추구하는 이론의 약점은 ‘의미론적 차이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⁹ 본 연구에 있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의 문자적 동등성을 추구할 때,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법 이론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 대구법 이론은 제임스 쿠겔(James Kugel)과 로버트 올터(Robert Alter)와 애델 벌린(Adele Berlin)의 선구적인 연구로 말미암아 최근에 대구법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¹⁰ 쿠겔과 올터는 이전에 로우쓰(Robert Lowth)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면서, 대구법은 콜론 간에

7 윗글.

8 윗글. 필자는 본 연구에서 개역개정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한글 번역본인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선택하였고, 영어 성경 중에서도 정확도로 정평이 나있는 번역본인 NRSV, NASB, NIV 등을 선택하여 비교하려고 한다. NRSV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뒤의 두 번역본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번역이다. 언급한대로 NRSV, NASB는 형식적 동등성을 추구하고, NIV는 역동적 동등성을 취하고 있는 번역본이기에 양극단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독일어나 불어 성경번역본도 비교하면 좋으나 제한된 지면상 모두 다룰 수는 없고, 또 필자의 교육적 배경 때문에 영어 번역본을 선택하였다.

9 윗글.

10 James L.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강화와 강조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혔고¹¹, 벌린은 의미론적인 차원을 넘어 음성학적, 문법적(형태론적, 구문론적) 차원에서도 대구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¹² 이들의 연구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한 필요가 없다. 단지 본 연구에서 이들의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동의적 대구법’(선택된 본문에는 이 형태만 나타남)이 앞뒤 콜론 간에 유사어로 연결시키고 강화, 강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과 대구를 이루는 말이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고 있으며, 그 의미를 밝히는데 대구법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3. 개역개정기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번역의 사례들

개역개정기의 시편에서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이 12번 사용된다.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히브리어 동사 ‘하가’와 ‘시아흐’와 이의 파생형 명사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이들 용어를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한 곳은 다음과 같다. 하가/하구트가 포함된 구절은 시편 39편 3절, 시편 49편 3절, 시편 63편 6절, 시편 71편 24절, 시편 77편 12절 등이다. 마지막 구절에는 시아흐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시아흐/시하가 포함된 구절은 시편 119편 15절, 23절, 27절, 48절, 78절, 97절, 시편 145편 5절 등이다. 총 12구절에서 이렇게

11 Robert Lowth,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s*, trans. G. Gregory (London: T. Tegg and Son, 1787; reprint, 1835; 라틴어 원제목: *De sacra poesi Hebraeorum* [1753]); Robert Lowth, *Isaiah: A New Translation with a Preliminary Dissertation and Notes* (London: T. Tegg and Son, 1778; reprint, 1848). 로우쓰의 이론을 교정한 쿠겔의 글은 다음을 참고하라. Kugel, *윳글*, 8, 13.

12 Berlin, *윳글*, 31-126.

번역되고 있다.

개역개정은 위의 12구절에서 모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모두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다. 권위 있는 영어성경 번역본들은 대부분 mediate (on), muse (on)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묵상하다’ 혹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드물게 ponder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뜻은 같다. 밑에서 비교 분석한 것을 보라.

4.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번역된 하가/시아흐의 사전적 의미

먼저, 이들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권위 있는 세 종류의 사전을 검토하겠다. BDB, HALOT, DCH가 이들 용어에 대해서 등록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BDB

BDB는 ‘하가’를 위해 ① 슬퍼하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말하다, 속고하다(시적 표현) (moan, growl, utter, speak, muse), ② 말하다(utter), ③ 묵상하다, 속고하다(meditate, muse) 등을 기본적 의미로 등록하고 있다.¹³

BDB는 ‘시아흐’를 위해 ① 불평하다(complain), ② 사색하다(muse), ③ (~에 대해) 이야기하다(talk (of)), 노래하다(sing (of)) 등의 의미를 등록하고 있다. 시아흐의 폴엘형을 위해 묵상하다, 생각하다(meditate, consider)라는 의미를 등록하고 있다.¹⁴

13 F. Brown, et al. (eds.), “הָגָה”, BDB 211.

14 F. Brown, et al. (eds.), “שִׂיחַ”, BDB 967.

2) HALOT

HALOT은 ‘하가’를 위해 ① (비둘기가) 구구구구하다(to coo), ② (사자가) 으르렁거리다(to growl), ③ 낮은 소리로 읽다(Koehler의 견해; to read in an undertone), ④ 묵상하면서 중얼거리다(to mutter while meditating), ⑤ 음모를 꾸미다(to plot),¹⁵ ⑥ 말하다, 선포하다(to speak, proclaim) 등의 의미를 등록하고 있다.¹⁶ 하가의 명사형인 ‘하구트’(הַגִּיט)는 묵상(meditation)이라는 의미로 등록하고 있다.¹⁷

HALOT은 ‘시아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있다. ① 숙고하다, 반추하다(to ponder, reflect), ② 이야기 하다, 담화하다(to talk, discourse), ③ 불평하다, 탄식하다(to complain, lament) (Lisowsky의 정의). HALOT은 Müller의 정의도 등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크고, 열정적이고, 감정이 실린 말로, 찬양하는 것, 탄식하는 것, 조롱하는 것, 가르치는 것 등을 의미하고, ② 감사와 찬양과 함께 묵상하는 것(to meditate with thanks and praise) 등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싣고 있다.¹⁸ HALOT은 시아흐의 명사형인 시하(הַיָּחַ)를 위해 “사려 깊은 명상, 묵상” 등의 의미를 싣고 있다.¹⁹

15 HALOT이 하가의 의미로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BDB와 DCH는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Van Pelt와 Kaiser는 하가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울벌을) 묵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음모를 꾸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본다. 이는 HALOT이 등록하고 있는 의미이다. 음모를 꾸미는 것은 생각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사고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낮은 소리로 읽다’라는 의미와 함께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M. V. Van Pelt & W. C. Kaiser, Jr., “הַגִּיט”, *NIDOTTE* 1:1006-1008(esp. 1008).

16 L. Koehler/W. Baumgartner(eds.), “הַגִּיט”, *HALOT* 1:237.

17 L. Koehler/W. Baumgartner(eds.), “הַגִּיט”, *HALOT* 1:238.

18 L. Koehler/W. Baumgartner(eds.), “הַיָּחַ”, *HALOT* 2:1319-1320.

19 L. Koehler/W. Baumgartner(eds.), “הַיָּחַ”, *HALOT* 2:1321.

3) DCH

DCH는 ‘하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신고 있다. ① (동물이) 으르렁거리다(*growl*), ② 신음하다(*moan, groan*), ③ 말하다(*utter, speak*), ④ 묵상하다(*meditate (on)*), ⑤ 상상하다, 음모를 꾸미다(*imagine, plot*) 등의 의미를 등록하고 있고, 이의 폴엘형은 ‘말하다’(*utter*)라는 의미로 등록하고 있다.²⁰ 이의 명사형인 하구트(*הַגִּיט*)는 ‘묵상’(meditation)이라는 의미로 등록하고 있다.²¹

DCH는 ‘시아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등록하고 있다. ① ‘묵상하다’라기보다 ‘말하다’(이는 특히 크고, 열정적이고, 감정이 실린 연설에서, 정신적 활동보다 언어적인 것과 관련이 있음), ② 탄식하다, 불평하다(*lament, complain*), ③ (~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하다, 흠담하다(*talk (about, negatively, hence gossip)*), ④ (~에게) 말하다(*speak (to)*), ⑤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converse with oneself*), ⑥ 말하다(*speak*), ⑦ 노래를 짓다(*compose (a song)*), ⑧ 노래하다(*sing*) 등의 의미를 등록하고 있다. 이의 폴엘형은 ① 묵상보다는 말하다, ② (~에 대항하여) 항의하다 등의 의미를 신고 있다. 이의 히트폴랄형은 ‘불평하다’라는 의미로 등록되어 있다.²² 이의 명사형인 시하(*הַשִּׁיחַ*)의 의미는 “묵상보다 대화하다, 잡담하다”라는 의미 등으로 등록하고 있다.²³

위에서 검토한 세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하가’와 ‘시아흐’는 모두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DCH의 경우 ‘시아흐’의 의미가 묵상보다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힌다. ‘하가’의 경우

20 D. J. A. Clines, et al.(eds.), “הַגִּיט”, *DCH* 2:487-488.

21 D. J. A. Clines, et al.(eds.), “הַגִּיט”, *DCH* 2: 488.

22 D. J. A. Clines, et al.(eds.), “הַשִּׁיחַ”, *DCH* 8:124-126.

23 D. J. A. Clines, et al.(eds.), “הַשִּׁיחַ”, *DCH* 8:126.

HALOT은 Koehler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낮은 소리로 읽다’라고 번역될 여지가 있음을 보이지만, BDB와 DCH의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시아흐’의 경우에는 어떤 사전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사전상의 의미를 등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아흐의 경우 DCH에 따르면 작은 소리가 아니라 “특히 크고, 열정적이고, 감정이 실린 연설에서, 정신적 활동보다 언어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할 때 적합한 동사이다.

그래서 사전상의 정의에 따르면 ‘하가’의 경우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여지를 한 학자의 견해를 빌어 HALOT이 싼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가’와 ‘시아흐’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제 다음 두 단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들 단어를 실제 성경(특히, 시편)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의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맥을 자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문맥은 대구법 분석을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²⁴

5. 번역본들 비교에서 본 번역의 사례들

1) 시편 39편 3절

[BHS; 39:4] חַסְלָבִי בְקַרְבִּי בְהִינֵי חֲבַעְרֵאֵשׁ דְּבַרְתִּי בְלִשׁוֹנִי

[개정개정]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24 필자는 이 글에서 어원 연구를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석학에서 이미 어원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D. A. Carson, *Exegetical Fallacies* (Grand Rapids: Baker, 1984), 26-32; Moisés Silva,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35-52.

[개역한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공동번역]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생각할수록 불길이 솟아 나와 감
히 혀를 놀립니다.

[새번역]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NIV] my heart grew hot within me. While I meditated, the fire
burned; then I spoke with my tongue:

[NASB] My heart was hot within me; While I was musing the fire
burned; [Then] I spoke with my tongue:

[NRSV] my heart became hot within me. While I mused, the fire
burned; then I spoke with my tongue:

시편 39편 3절에서는 개역개정만 하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한글판과 영어성경들은 모두 “묵상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생각하다”라는 의
미로 번역하고 있다.

2) 시편 49편 3절

[BHS; 49:4] פִּי יִדְבֹר חֲכָמוֹת וְהַגִּית לְבִי תְבוּנוֹת:

[개역개정]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개역한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공동번역]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지녔고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겼다.

[새번역]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NIV] My mouth will speak words of wisdom; the meditation of my
heart will give you understanding.

[NASB] My mouth will speak wisdom; And the meditation of my

www.kci.go.kr

heart (will be) understanding.

[NRSV] My mouth shall speak wisdom; the meditation of my heart shall be understanding.

시편 49편 3절에 사용된 하가를 개역개정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동사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한글판은 “묵상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하고 있다. 공동번역은 그냥 “말”로 번역하고 있다. 새번역은 “생각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의 명사형 용법에 맞게 모두 “(내 마음의) 묵상”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역개정에 따르면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의미상 어색한 번역이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명철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

3) 시편 63편 6절

[BHS; 63:7]: אִם-זִכְרְתִיךָ עַל-יְצוּעֵי בְּאֲשֵׁמֹת אֶהְיֶה בָּךְ

[개역개정]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개역한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공동번역]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새번역]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NIV] On my bed I remember you; I think of you through the watches of the night.

[NASB] When I remember Thee on my bed, I meditate on Thee in the night watches,

[NRSV] when I think of you on my bed, and meditate on you in the watches of the night;

www.kci.go.kr

시편 63편 6절의 원문에는 하가의 목적어가 “당신(주)”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하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주”라는 말을 원문에도 없는 “주의 말씀”이라는 용어로 대치해서 번역하고 있다.²⁵ 아마 “주”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기에는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해본다. 다른 한글 번역본들은 목적어가 ‘주’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개역 한글판은 “묵상하다”로,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생각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의 경우 NIV만 “생각하다”로 번역하고 있고, 나머지 번역본들은 모두 “묵상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4) 시편 71편 24절

[BHS 71 :24] וְגַם-לְשׁוֹנִי כָּל-הַיּוֹם תְּהַגֵּה צְדָקֹתָי כִּי-בָשׂוּ כִּי-חָפְרוּ מִבְּקָשֵׁי רַעְתִּי:

[개역개정]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개역한글]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공동번역] 나의 혀가 종일토록 당신의 정의를 이야기하리이다. 나를 모함하던 자들, 수치와 망신을 당하여라.

[새번역]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NIV] My tongue will tell of your righteous acts all day long, for those who wanted to harm me have been put to shame and confusion.

[NASB] My tongue also will utter Thy righteousness all day long; For

25 Ringgren도 여호수아 1장 8절을 설명하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율법(torah)을 이의 목적으로 둘 때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H. Ringgren, “הָגָה”, TDNT 3: 321-324(esp. 323).

they are ashamed, for they are humiliated who seek my hurt.

[NRSV] All day long my tongue will talk of your righteous help, for those who tried to do me harm have been put to shame, and disgraced.

시편 71편 24절의 경우 개역개정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한글판과 새번역은 “말하다”라는 의미로, 공동번역은 “이야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들은 모두 “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도 개역개정의 번역이 뭔가 어색하다.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의를 묵상하거나 말하는 것이 더 나올 것이다.

5) 시편 77편 12절

[BHS 77:13] וְהִגִּיתִי בְּכָל-פְּעֻלָּתְךָ וּבְעֵלִילוֹתֶיךָ אֲשִׁיחָהּ:

[개역개정]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개역한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공동번역] 주의 행적을 하나하나 되뇌고 장하신 그 일들을 깊이 되새기리이다.

[새번역]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깊이 되새기겠습니다.

[NIV] I will consider all your works and meditate on all your mighty deeds.

[NASB] I will meditate on all Thy work, And muse on Thy deeds.

[NRSV] I will meditate on all your work, and muse on your mighty deeds.

시편 77편 12절의 경우, 하가(앞 콜론)와 시아흐(뒤 콜론)가 모두 사

www.kci.go.kr

용되고 있는데, 앞 콜론에 사용된 하가의 경우 개역개정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개역한글판은 “묵상하다”로,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하나하나 되뇌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의 경우 NIV는 “생각하다”로 나머지는 모두 “묵상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뒤 콜론에 사용된 시아흐의 경우, 개역개정은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로, 개역한글판은 “깊이 생각하다”로,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깊이 되새기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은 모두 “묵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개역개정의 하가/시아흐의 번역은 이의 목적어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과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는 것은 의미상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다. 다른 번역들이 제안하고 있듯이 하가는 ‘묵상하다’로, 시아흐는 ‘깊이 되새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의 목적어와 잘 어울린다.

6) 시편 119편 15절

[BHS 119: 15]: בְּפִקְרֵי אֲשִׁיחָהּ וְאֶבְיטָהּ אֶרְחֹמֶיךָ

[개역개정]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개역한글]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공동번역]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주신 길을 똑바로 걸으리이다.

[새번역]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NIV] I meditate on your precepts and consider your ways.

[ASV] I will meditate on thy precepts, And have respect unto thy ways.

[NASB] I will meditate on Thy precepts, And regard Thy ways.

[NRSV] I will meditate on your precepts, and fix my eyes on your ways.

www.kci.go.kr

시편 119편 15절의 경우, 개역개정은 시아흐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지만, 개역한글판과 새번역은 “묵상하다”로, 공동번역은 “되새기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들은 모두 “묵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특히 개역개정이 시아흐의 사전 상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오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하가의 의미를 시아흐에 오환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 보인다. 시아흐의 의미는 DCH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특히 크고, 열정적이고, 감정이 실린 연설에서, 정신적 활동보다 언어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보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에 적합한 말이다.

7) 시편 119편 23절

[BHS 119:23] גַּם יִשְׁבוּ שָׂרִים בֵּי נִדְבָרוֹ עֲבָדָי יִשִּׁים בְּחַקֵּיךָ

[개역개정]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개역한글] 방백들도 앉아 나를 훼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공동번역] 수령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오나 이 종은 당신의 법규를 명상합니다.

[새번역]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NIV] Though rulers sit together and slander me, your servant will meditate on your decrees.

[NASB] Even though princes sit and talk against me, Thy servant meditates on Thy statutes.

[NRSV] Even though princes sit plotting against me, your servant will meditate on your statutes.

시편 119편 23절의 경우, 개역개정은 시아흐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지만, 개역한글판과 새번역은 “묵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명상하다”라고 번역한다. 영어 성경들은 모두 “묵상하다”라고 번역한다.

여기서도 개역개정이 시아흐의 사전 상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8) 시편 119편 27절

[BHS 119:27] בְּנִפְלְאוֹתֶיךָ יְיָ אֱשִׁיחָהּ בְּנִפְלְאוֹתֶיךָ יְיָ אֱשִׁיחָהּ

[개역개정]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मैं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개역한글]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공동번역] 당신 계명 따르는 길, 깨우쳐주소서. 주의 이루신 기적들을
 되새기리이다.

[새번역]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NIV] Cause me to understand the way of your precepts, that I may
 meditate on your wonderful deeds.

[NASB] Make me understand the way of Thy precepts, So I will
 meditate on Thy wonders.

[NRSV] Make me understand the way of your precepts, and I will
 meditate on your wondrous works.

시편 119편 27절의 경우, 개역개정은 시아흐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지만, 개역한글판과 새번역은 “묵상하다”로, 공동번역은 “되새기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들은 모두 “묵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www.kci.go.kr

여기서도 개역개정판이 시아흐의 사전 상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개역개정판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라는 번역은 이의 목적어(주의 기사)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다. 주의 기사는 목상의 대상이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9) 시편 119편 48절

[BHS 119:48] וְאֲשֶׁר-כָּפִי אֶל-מִצְוֹתֶיךָ אֲשֶׁר אֶהְבֵּתִי וְאֲשִׁיחָהּ
:קִיְיָ

[개역개정]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개역한글] 또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공동번역] 당신 계명 내가 사랑하옵기에 쌍수 들어 반기고 당신 뜻을 언제나 나는 명상합니다.

[새번역]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NIV] I reach out for your commands, which I love, that I may meditate on your decrees.

[ASV] I will lift up my hands also unto thy commandments, which I have loved; And I will meditate on thy statutes.

[NASB] And I shall lift up my hands to Thy commandments, Which I love; And I will meditate on Thy statutes.

[NRSV] I revere your commandments, which I love, and I will meditate on your statutes.

시편 119편 48절의 경우, 개역개정판은 시아흐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지만, 개역한글판과 새번역은 “(깊이) 묵상하다”로, 공동번역은 “명상하다”라고 번역한다. 영어 성경들은 모두 “묵상하다”라

www.kci.go.kr

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도 개역개정이 시아흐의 사전 상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10) 시편 119편 78절

[BHS 119:78]: **יְבֹשֻׁ זְרִים כִּי־שִׁקַּר עֲתַוְנִי אֲנִי אֲשִׁיחַ בְּפִקְוֵי־דָבָר**

[개역개정]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엿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개역한글]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엿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공동번역]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

[새번역]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NIV] May the arrogant be put to shame for wronging me without cause; but I will meditate on your precepts.

[NASB] May the arrogant be ashamed, for they subvert me with a lie; [But] I shall meditate on Thy precepts.

[NRSV] Let the arrogant be put to shame, because they have subverted me with guile; as for me, I will meditate on your precepts.

시편 119편 78절의 경우, 개역개정은 시아흐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지만, 개역한글판은 “묵상하다”로, 공동번역은 “되새기다”로, 새번역은 “생각하다”라고 번역한다. 영어 성경들은 모두 “묵상하다”라고 번역한다.

여기서도 개역개정이 시아흐의 사전 상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11) 시편 119편 97절

[BHS 119:97]: מִהֲאֶהְבֵּתִי תוֹרַתְךָ כָּל־הַיּוֹם הִיא שִׂיחָתִי:

[개역개정]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
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개역한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
일 묵상하나이다

[공동번역]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
을 되새깁니다.

[새번역]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
이 생각합니다.

[NIV] Oh, how I love your law!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NASB] O how I love Thy law!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

[NRSV] Oh, how I love your law! It is my meditation all day long.

시편 119편 97절의 경우, 시아흐의 명사형 시하가 1인칭 대명사 접미어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개역개정은 이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동사로 번역하고 있고, 개역한글판은 “묵상하다”로, 공동번역은 “되새기다”로, 새번역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의 경우 NIV는 “묵상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하지만, 나머지 영어 성경들은 원문처럼 모두 “(나의) 묵상”이라는 명사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도 개역개정이 시하(시아흐의 명사형)의 사전상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12) 시편 145편 5절

[BHS 145:5]: הָרַר כְּבוֹד הַדָּוָר וּדְבָרֵי נִפְלְאוֹתֶיךָ אֲשִׁיחָהּ:

[개역개정]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개역한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

하리이다

[공동번역] 당신의 명성, 그 찬란함, 이룩하신 놀라운 일 전하고 또 전하리이다.

[새번역]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NIV] They speak of the glorious splendor of your majesty- and I will meditate on your wonderful works.

[NASB] On the glorious splendor of Thy majesty, And on Thy wonderful works, I will meditate.

[NRSV] On the glorious splendor of your majesty, and on your wondrous works, I will meditate.

시편 145편 5절의 경우, 개역개정은 시아흐라는 동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지만, 개역한글판은 “묵상하다”로, 공동번역은 “전하고 또 전하다”로, 새번역은 “가슴 깊이 새기다”라고 번역한다. 영어 번역본들은 모두 “묵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도 개역개정이 시아흐의 사전 상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시편에 사용된 12구절의 용례 중에서 시편 77편 12절의 하가의 경우 공동번역과 새번역이 “하나하나 되뇌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 다른 어떤 번역도 개정개정판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한 사례가 없다. 영어 성경의 경우 시편 77편 12절도 대부분 “묵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단, NIV는 “생각하다”(consider)라고 번역하고 있다. “하나하나 되뇌이다”라는 말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과는 다소 의미의 차이가 있다. 최대한 관대하게 허용하더라도 시편 77편 12절의 하가 외에는 하가나 시하/시아흐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예는 없다.

www.kci.go.kr

6. 대구법 구조를 통해 추론해본 하가/시아흐의 적절한 의미들

20세기 제임스 쿠걸(James Kugel)과 로버트 올트(Robert Alter) 등의 연구로 인해 대구법 이해에 큰 진보를 이루었다.²⁶ 대구법에 대한 연구는 강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대구법 구조 속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규명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대구법 구조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맥을 형성한다. 하가/하구트와 시아흐/시아하가 대구법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함으로써 이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시편 77편 12절

[BHS 77:13] :וְהִגִּיתִי בְּכָל־פְּעֻלֶיךָ וּבְעֵלִילוֹתֶיךָ אֱשִׁיחָהּ:

[개역한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

[NRSV] I will meditate on all your work,/ and muse on your mighty deeds.//

시편 77편 12절은 앞의 콜론과 뒤의 콜론이 완벽한 동의적 대구법을 이루는 구조이다. 동의적 대구법은 앞 콜론과 유사한 표현을 뒤 콜론에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는 형태이다.²⁷ 앞 콜론에 사용된 동사 하가를 뒤 콜론의 시아흐 동사가 강화하는 형태이다. 개역한글판과 NRSV의 번역의 실례에서 보여주듯이 두 단어는 ‘묵상하다’와 ‘깊이 생각하다’라는 매우 근접한 용어를 사용하여 강화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개역개정판의 경우는 매우 어색한 번역과 대구법을 만들어

26 Kugel, 윗글; Alter, 윗글.

27 Tremper Longman III, *How to Read the Psalms* (Downers Grove: IVP, 1988), 99.

놓았다.

[개역개정]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

무엇보다 이 번역은 뒤 콜론에 나오는 시아흐에 없는 의미를 억지로 집어넣음으로써 오역을 하고 있고, 앞 콜론의 하가의 번역도 어색한 의미를 자아내고 있다. '주의 모든 일'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이 문맥상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표현을 현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의미를 연상하게 될까? 하가에 대한 Koehler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현대인들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더 나은 번역은 '묵상하다'라는 번역일 것이다. 결국 히브리 문화 속에서 하가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지라도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묵상에 있기 때문이다.

2) 시편 119편 15절

[BHS 119: 15]: אֲשִׁיחָהּ אֶשְׁמְרָה אֶת־דְּבָרֶיךָ אֲבִיטָה אֶרְחֹמֶיךָ

[개역개정]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

[개역한글]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 주의 도에 주의하며 //

[NASB] I will meditate on Thy precepts, / And regard Thy ways. //

시편 119편 15절도 앞 콜론과 뒤 콜론이 동의적 대구법을 이루는 구조이다. 대구법 구조상 앞 콜론의 동사 시아흐의 의미는 뒤 콜론의 동사 나바트(נָבַט/주의하다)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역한글이

www.kci.go.kr

나 NASB가 번역하고 있듯이 이는 (주의 도에) ‘주의하다’는 의미인데, 앞
 콜론의 시아흐도 이에 상응하는 의미인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적절할
 것이다. 이 대구법의 구조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개역개정판의 번역은 어색하다.

3) 시편 63편 6절

[BHS; 63:7]: אִם-זִכְרְתִּיךָ עַל-יְבוֹעֵי בְּאִשְׁמֹרוֹת אֶהְגֶּה-בָּךְ:

[개역개정]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

[ESV] when I remember you upon my bed, / and meditate on you in
 the watches of the night; //

[NRSV] when I think of you on my bed, / and meditate on you in the
 watches of the night; //

시편 63편 6절도 앞뒤 콜론이 동의적 대구법을 이루는 구조이다.
 앞 콜론의 의미와 뒤 콜론의 의미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앞 콜론의
 ‘자카르’(זכר)의 ‘기억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의미와 대구를 이루는
 뒤 콜론의 하가는 이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번역이 최상의 번역일 것이
 다. 기억이나 생각은 모두 사고활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다’라
 는 의미가 앞 콜론과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고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적
 절한 동사일 것이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최악의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작은 소리로 읊
 조린다’(하가)라는 동사와 맞추기 위해서 ‘주’(יְהוָה)를 ‘주의 말씀’으로 둔
 갑시켜 번역하고 있다. 주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주’를 ‘주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번역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여기서도 하가를 위한 최상의 번역은 ESV나 NRSV가 번역하고
 있듯이 ‘묵상하다’일 것이다.

4) 시편 143편 5절

[BHS 143:5] זָכַרְתִּי יְמֵימוֹ מִקְדָּם הַגִּיתִי בְּכָל-פְּעֻלָּךְ בְּמַעֲשֵׂהָ
 יְיָ אֱשׂוּחָהּ

[개역개정]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

[개역한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

[ESV] I remember the days of old; / I meditate on all that you have
 done; / I ponder the work of your hands. //

시편 143편 5절은 3개의 콜론으로 구성된 반복적 대구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콜론과 세 번째 콜론이 의미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콜론에는 ‘하가’(Qal, perf.)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세 번째 콜론에는 ‘시아흐’(Polel, imperf.)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첫 콜론에 나오는 자카르(זָכַר/기억하다)라는 동사는 이 묵상의 과정이 기억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인다.²⁸ 그래서 두세 번째 콜론에 나오는 묵상의 내용은 이 사고 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목적어 자체를 생각하더라도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이나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은 작은 소리로 읊조릴 일들이 아니라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대상들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묵상하다’ 혹은 ‘숙고하다’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묵상의 내용이 말씀인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는 것으로 번역한 개역개정 번역은 뭔가 어색하다.

28 Van Pelt/Kaiser도 자카르, 하가, 시아흐가 대구법을 이루어 종종 나타남을 목격하고 있다. Van Pelt/Kaiser, 윗글, 1:1007-1008.

5) 시편 77편 3절

[BHS; 77:4]: אֲזַכֵּרָה אֱלֹהִים וְאֶהְיֶה אֲשִׁיחָהּ | וְתַחֲעַמְפָּךְ רוּחִי סָלָה:

[개역개정]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

하도다 (셀라)

[공동번역] 하느님을 기억하니 한숨만 터지고 / 곰곰이 생각하면 기

가 막힙니다. // (셀라)

[ESV] When I remember God, I moan; / when I meditate, my spirit

faints. // Selah

[NRSV] I think of God, and I moan; / I meditate, and my spirit

faints. // Selah

시편 77편 3절도 두 콜론으로 구성된 구절로, 앞 콜론과 뒤 콜론이 동의적 대구법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다. 공동번역과 ESV, NRSV는 모두 앞뒤 콜론이 동의적 대구법을 이루도록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대구법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색하게 번역하고 있다. 앞 콜론의 자카르가 뒤 콜론의 시아흐와 울림을 주도록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앞 콜론의 ‘기억하다/생각하다’와 뒤 콜론의 ‘묵상하다/곰곰이 생각하다’가 동의적 대구법상 적절한 의미의 매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이 시아흐를 ‘근심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어떤 사전도 이런 의미를 등록하고 있지 않다.

7. 현대인의 이해를 위한 보다 나은 번역

원래 고대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왔다고 인정할지라도(이 부분도 검정이 되어야 하지만), 이 번역으로는 현대 독자들이 본문의 뜻을 선뜻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개역개정을 읽는 현대 독자들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www.kci.go.kr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손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고대 히브리인들이 암송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뇌면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관습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반복적 과정을 통해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본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성경 묵상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면화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묵상을 하게 된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하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일 것이다. 개역개정판이 시편 1편 2절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는가? “오직 여호와와 더불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하가).” 이 번역이 현대 독자들에게 훨씬 쉽게 와 닿을 것이다.²⁹

8. 나가는 말

지금까지 시아흐/시하를 개역개정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8개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개역개정이 시아흐/시하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오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먼저 사전 상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다른 한글이나 영어 번역본들에서도 이런 번역을 볼 수 없다. 대구법의 구조상 보더라도 이런 의미는 문맥상 부적절함을 보였다.

하가/하구트의 경우도 개역개정은 5구절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맥상 부적절함을 보

29 하가라는 말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예, 시 77:12의 앞 콜론의 동사), 현대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이 말의 번역으로 ‘역동적 동등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왔다. 하가의 목적어로 사용된 단어가 율법/말씀인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될 가능성이 있지만 5구절 중에 이를 목적어로 삼고 있는 구절은 전혀 없다(목적어 없음[시 39:3], 명철[시 49:3], 주의 의[시 71:24], 주의 모든 일[시 77:12]을 목적어로 둠). 개역개정판은 시편 63편 6절의 경우에는 ‘주’를 ‘주의 말씀’으로 억지로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넣는 것은 성경 번역의 참사로 볼 수밖에 없다. 개역개정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문맥에 따라 ‘묵상하다’ 혹은 ‘깊이 생각하다’ 혹은 ‘말하다’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³⁰

참고 문헌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6.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공동번역 성서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BH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4.
New International Version, Colorado Springs: Biblica, 2011.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La Habra, CA: The Lockman Foundation, 1995.
English Standard Version, Wheaton, IL: Crossway Bibles, 2011.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City: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1952.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City: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1989.

30 한국어로 시편이 번역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정중호의 연구에 의하면 1801년 신유박해 때, 이미 한글로 번역된 시편이 있었다고 한다. 그간 오랜 세월 숙고한 의미를 후일 새로운 학자의 견해라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정중호,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제21권 제2호(통권56집) (2015), 65-90.

- 김이곤, “시편 1편의 הנהגה와 נבל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제2호 (1998), 43-51.
- 김태경, “시편 연구사,” 『구약 논단』 제20권 제3호 (통권53집) (2014), 325-356.
- 정중호,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 논단』 제21권 제2호(통권56집) (2015), 65-90.
- 주원준, “히브리어 동사문의 양적 구조 분석 방법론 개괄,” 『신학과 철학』 16 (2010), 1-28.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 Berlin, Adele,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 Brown, F. et al.(eds.), “הָגָה”, *BDB* 211.
- Brown, F. et al.(eds.), “שִׁיחַ”, *BDB* 967.
- Carson, D. A., *Exegetical Fallacies* (Grand Rapids: Baker, 1984).
- Clines, D. J. A. et al.(eds.), “הגה”, *DCH* 2: 487-488.
- Clines, D. J. A. et al.(eds.), “הגות”, *DCH* 2: 488.
- Clines, D. J. A. et al.(eds.), “שיח”, *DCH* 8: 124-126.
- Clines, D. J. A. et al.(eds.), “שיחה”, *DCH* 8: 126.
- Heimerdinger, Jean-Marc, *Topic, Focus and Foreground in Ancient Hebrew Narratives* (JSOTSupp 29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Koehler, L./W. Baumgartner(eds.), “הגה”, *HALOT* 1:237.
- Koehler, L./W. Baumgartner(eds.), “הגות”, *HALOT* 1:238.
- Koehler, L./W. Baumgartner(eds.), “שיח”, *HALOT* 2:1319-1320.
- Koehler, L./W. Baumgartner(eds.), “שיחה”, *HALOT* 2:1321.
- Kugel, James 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 Longman, Tremper, III, *How to Read the Psalms* (Downers Grove: IVP, 1988).
- Lowth, Robert,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s*, trans. G. Gregory (London: T. Tegg and Son, 1787; reprint, 1835; 라틴어 원제목: *De sacra poesi Hebraeorum* [1753]).
- _____. *Isaiah: A New Translation with a Preliminary Dissertation and Notes* (London: T. Tegg and Son, 1778; reprint, 1848).
- Ringgren, H., “הָגָה”, *TDNT* 3:321-324.

Silva, Moisés,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83).

Van Pelt, M. V./W. C. Kaiser, Jr., “הגה”, *NIDOTTE* 1:1006-1008.

Wikipedia, “Dynamic and formal equivalence,” https://en.wikipedia.org/wiki/Dynamic_and_formal_equivalence.

Wikipedia, “Robert E. Longacre,” https://en.wikipedia.org/wiki/Robert_E._Longacre.

검색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가, 시아흐, 묵상, 시편

[ABSTRACT]

Problems of the Translation “To Recite in a Low Voice” (Haga/Siax)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NKRV)

Jinkyu Kim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translation of haga/siax as “recite in a low voice” in the Psalms of NKRV.

To achieve this purpose, we first looked at the examples of this type of translations in NKRV. Next, the dictionary meanings of haga/siax registered in Hebrew dictionaries were reviewed. The translations of NKRV were compared with other translations. To confirm the meanings of these terms more clearly, the parallelisms of the phrases in which these terms are used were examined. In the final step, we consider whether modern readers can easily understand such a meaning.

The result of the study yields that haga/siax hardly support the translation “to recite in a low voice” in NKRV, in light of their dictionary meanings, their usages, and the structures of their parallelisms.

key words

to recite in a low voice, haga, siax, meditation, Psalms

투고일 : 2023년 01월 28일

심사일 : 2023년 02월 16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2월 16일

www.kci.go.kr